

후기노인들의 역사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을 중심으로-

양 영 자

(경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노인들의 삶에 나타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이 어떠한 '현재성'이 있는지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Sch tze의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실시한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9개를 Rosenthal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주로 경험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친일경험'으로서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과 '국군생활'로서의 6.25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은 '개별화된 현재성'이 있는 반면, '남편의 역사적 죽음'으로 표출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잠재된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노인복지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후기노인, 역사경험, 생애사, 생애사 연구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의 후기노인들의 삶을 '이해(verstehen)'하기 위해서는 이들 코호트(Kohorte)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김미혜·강인, 2002)에 대한 역사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경험은 과거에 불박여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경험한 후기노인들의 오늘날의 삶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성'(염미경, 2001; 김귀옥, 2003; Rosenthal, 1990)이 있기 때문이다. 그

* 본 논문은 2009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결과는 200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요약·발표되었음.

런데 이러한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한 코호트의 '집합적인 역사경험(kollektive Geschichtserfahrung)'에 의해서보다는 그 코호트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역사경험(individuelle Geschichtserfahrung)'에 의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역사경험의 현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코호트 전체의 집합적인 역사경험보다는 코호트구성원들 개개인의 개인적인 역사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후기노인들의 삶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이들 코호트의 전반적인 삶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양가적 속성'(Atchley and Barusch, 2004)을 포착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대략 두 흐름으로 나뉘는데, 한 흐름에서는 후기노인들을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의존적인 집단(박경숙, 2004; 한경혜, 2004, 이효선, 2006)으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그리고 또 다른 흐름에서는 후기노인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으로 형성해가고 있는 자율적인 존재(박기남, 2004; 박성희, 2006: 175-176, 양영자, 2007)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들 코호트의 양가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전제된 역사경험의 현재성, 특히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경험의 현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엽적인 수준에서나마 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몇 편의 질적 연구들(김미혜·강인, 2002; 이효선, 2006; 양영자, 2007, 2008) 또한 집합적인 역사경험만을 매우 단편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노인들의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삶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여러 생애단계에 걸쳐 집적된 '경험층(Erfahrungsaufschichtung)'(Schütze, 1983; von Felden, 2003)을 분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인 생애사 연구(Schütze, 1983; Rosenthal, 1995, 2005, 2008)를 통해 접근할 것이다.

즉, 본 생애사 연구의 목적은 후기노인들의 개인적인 역사경험이 어떠한 현재성이 있는지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그럼으로써 이들 코호트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노인복지실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후기노인들의 개인적인 역사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는 지금까지 역사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역사학 분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구술사 연구¹⁾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²⁾ 6.25

1) 생애사 연구와 구술사 연구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2005: 71-75)의 역사와 Schütze(1983)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2) 윤택립(2001)의 구술사연구 "한국 근현대사 속의 농촌 여성의 삶과 역사 이해"는 일제강점기에 대

전쟁 경험에 대한 구술사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들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일제강점기 경험이 있는 생존한 코호트구성원들을 확보하는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25전쟁 경험에 대한 구술사 연구를 위주로 하여 살펴보면, 마을의 차원에서 분석한 구술사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³⁾ 이러한 연구들은 대략 역사적 과거의 실상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과거의 리얼리티를 복원'하려는 흐름(정진상, 1995; 이용기, 2001; 정근식, 2002)과 경험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기억의 역사화'를 시도하는 흐름(윤택립, 1997, 1999, 2001)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연구흐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공식적 역사'의 한계점, 즉 경험을 총체적으로는 재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제한점(윤택립, 1994: 274; 염미경, 2001: 213; 재인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하겠다. 즉 두 연구흐름 모두 지배자들의 시각에서 서술된 공식적 역사에서 배제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냄으로써, '비공식적 역사'로 정의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서술(Mayring, 2002)하고 있는 데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학 분야의 구술사 연구는 '기억 속에 있는 사실'에 접근하여 과거의 리얼리티를 복원할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 분야의 생애사 연구가 관심을 갖는 구술사 개개인들이 직면한 '현재로서의 역사'(한완상·박명규, 1992)와 그러한 역사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개개인의 삶의 문제 및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소홀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 분야에서는 일제강점기나 6.25전쟁과 관련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에 초점을 맞춘 생애사 연구는 물론, 다른 질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두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집합적인 역사경험에 대한 논의만이 노인부양과 노인들의 삶에 대한 소수의 생애사 연구(김미혜·강인, 2002; 양영자, 2007, 2008)와 질적 연구(이효선, 2006) 내에서 파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성노인의 회상에 의거하여 한국근대사에서 이루어진 시부모부양 경험에 대해 분석한 김미혜·강인(2002)의 생애사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은 6.25전쟁과 일제강점기였다는 집합적인 역사경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효선(2006)의 한국노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도 일제강점기 때에는 정신대를 피하기 위해 조혼풍속이 일반화되었다는 것과, 일제강점기 및 6.25 전쟁 때에는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역시 집합적인 역사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내놓고 있다. 또한 손자녀를 위해 이농한 후기여성노인들의 삶에 대해 생애사 연구를 한 양영자(2007)도 개인적인 역사경험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징집 및 징용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로 빈곤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이 개인화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 집합적인 역사경험에 관심을 둔 다른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결과를 내놓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양영자(2008)의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 대한 생애사 연구도 빈곤한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식량강탈까지 당함으로써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의 극단적인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다는 이효선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집합적인 역사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내놓

한 경험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예외가 된다.

- 3) 윤택립(1999)의 구술사 연구 "6.25와 유씨 가족"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연구로서, 이에 대한 예외가 된다.

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노인부양과 노인들의 삶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집합적인 역사경험을 다루고 있는데, 이 또한 매우 부분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역사경험의 현재성을 매우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데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성은 개인적인 역사경험에 의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후기노인들의 개인적인 역사경험에 초점을 맞춘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들 코호트구성원들의 역사경험이 어떠한 현재성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생애사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Schütze(1983: 283-285)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autobiographisch-narratives Interview)'를 통해 하였는데, 그가 제안한 바에 따라 첫째, 생애사적 '이야기'에 대한 요청의 단계, 둘째, 생애사적 이야기에 대한 단계, 셋째, 후질문 단계의 과정을 거쳐 하였다.⁴⁾ 위의 3단계에 따라 실시한 노인들과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는 2008년 10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그리고 2009년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2차례에 걸쳐 경남 J,⁵⁾ K, L, M시에서 생애사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수업을 통해 훈련을 받은 37명의 학부학생들이 실시한 것으로서 총 44개⁶⁾에 달했다. 그중, 일제강점기를 청소년기까지 경험한 코호트인 1930년을 전후로 하여 출생한 후기노인들에게 속한 인터뷰 30개를 1차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이어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인터뷰 13개를 2차 선별하였다. 그러나 10세 전후인 유년시절에 2-3년간의 일본체류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4개의 인터뷰는 이러한 일본체류경험이 키워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삼은 9개의 인터뷰는 각각 2차례 이상에 걸쳐 수집된 것으로서 짧게는 대략 2시간부터 길게는 3시간까지 소요되었는데, 이외에도 양로원의 데이터⁷⁾가 본 생애사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4) 인터뷰 실시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영자(2007, 2008, 2009)의 연구를 참조하시오.

5) 지명이나 인명 등은 익명성의 보장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호화한다.

6) 이러한 44개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는 노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집하였다. 그런데 집합적인 역사경험만을 한 후기노인들의 생애사에서는 이러한 역사경험이 키워드가 되지 않는 특징, 즉 이들의 오늘날의 삶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합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개인적인 역사경험이 생애사의 키워드가 되는 인터뷰만을 선별하여 역사경험의 현재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하였다. 이는 본 연구자가 2006년 10월에 실시한 남성노년노인과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1개도 포함시켰다.

7) 양로원의 데이터는 종사자들의 구두진술과 인터뷰시 관찰한 인터뷰파트너의 주변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로원의 데이터는 Rosenthal(1995)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 분석방법론에 따른 것으로서, 특히 체화된 생애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생애사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Rosenthal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narrativ-biographisches Interview)' 분석방법(1987: 143-244, 1995: 215-226, 2005: 456-468, 2008: 161-198)⁸⁾에 따라, 다음과 같이 6단계의 과정을 거쳐 하였다. 첫째, 생애사적 데이터의 분석 단계에서는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 둘째, 텍스트 분석 및 테마에 따른 필드 분석 단계에서는 '이야기된 생애사'의 분석을 위해, 인터뷰 텍스트를 연속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사의 재구성 단계에서는 '체험된 생애사'⁹⁾의 재구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생애사적 체험과 그 체험이 갖는 의미를 시간적 순서로 재구성하였다. 넷째, 개별적 텍스트의 세밀 분석 단계에서는 앞서의 분석절차를 통해 얻은 체험된 생애사 내의 체험이 갖는 생애사적 의미와 관련한 가설들뿐만이 아니라, '생애사주체'의 생애사적 관점 및 평가와 관련한 가설들도 검증하였다. 다섯째,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비교 단계에서는 두 생애사의 측면을 대조시킴으로써, 기억으로부터 체험을 선택하여 소개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단서, 과거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 간의 차이,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시간성 속에 나타난 차이에 대한 단서 등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비교분석 단계에서는 전체사례들을 대조시켜 분석함으로써, '연구주체'와 연구자의 '상호주관성(Inter-subjektivität)'에 근거한 해석을 하였다.

8) 이러한 분석방법의 이론적 토대는 Rosenthal(1995, 2005, 2008)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 분석방법론인데, 이는 Schütze (1983)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방법론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생애사 연구방법론에서 노출된 '이야기(Narration)'와 '현실(Wirklichkeit)'의 동일시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Rosenthal이 체계화한 생애사 연구방법론이다. 즉 기존의 생애사 연구방법론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우리 현실(Wir-Wirklichkeit)'을 각자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는 개개인들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구성(Konstruktion)'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 속에서 '비구성'되기도 하는 측면이 간과되는 한계가 있음을 포착한 바, Rosenthal은 체험된 생애사로서의 '삶'과 이야기된 생애사로서의 이야기를 구분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9) 체험된 생애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로 이루어진 생애사로서,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체험된 생애사는 생애사주체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야기된 생애사에 내재된 왜곡의 위험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이야기된 생애사는 생애사주체에 의해 서술된 생애사인데,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들로 구성된 체험된 생애사가 모두 이야기되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야기된 생애사에는 생애사주체에 의해 체험된 생애사가 왜곡되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Rosenthal, 1995).

4. 연구결과

1) ‘연구주체’ 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주체의 일반적 특성

생애주체	출생연도 (배우자)	인터뷰시연령 (인터뷰연도)	결혼연도 (연령)	학력	자녀관계	배우자생존여부 및 결혼상태	거주형태 및 복지제도수급정도	직업경험	역사적 경험	
									일제강점기	6.25전쟁
A 할머니	1912 (1906)	96 (2008)	1928 (16)	보통학교졸	무	미상	양로원(13년), 기초생활보장	일제강점기 직장생활(미상), 사회단체 활동(대일본부인회지부장), 농업	식민지교육, 직장생활(미상), 대일본부인회 지부장	1.4후퇴 때 홀로 월남함.
B 할머니	1923 (1924)	85 (2008)	1939 (16)	야학	무	행방불명	독거, 기초생활보장	농업, 공업, 일용품행상	강제징집된 남편	언급 없음
C 할아버지	1920	89 (2009)	1943 (23)	보통학교졸(10)	2남 2녀	질병사	양로원(2년), 군인연금	상업, 일본 및 한국의 해군 문관	식민지교육, 일본해군부대매점 배달부(일본인집으로의 입주), 일본해군문관(일본인선박설계 및 정비회사), 창씨개명	한국해군문관
D 할아버지	1929 (1938)	79 (2006)	1947 (18, 33)	보통학교졸	4남 2녀	생존	노인부부가구, 공무원연금	공무원	면사무소 “소사”	언급 없음.
E 할아버지	1930 (1925, 1927)	78 (2008)	1949 (19)	보통학교졸	3남 1녀	질병사, 이혼	장남가족과 동거, 기초생활보장, 주간보호센터(7년)	농업, 보세장식장인부, 건설현장노동자(일본불법체류)	식민지교육	1950년 입대, 전시의 군생활, 2대 독자로서 의가사제대함.
F 할아버지	1924 (1927)	84 (2008)	1942 (18)	야학	1남(사망) 3녀(막내딸사망)	질병사	양로원(5년), 기초생활보장	중국음식점운영, 맥주공장생활	6촌 형의 경찰 생활	6촌 형으로 인해 ‘반동분자’로 몰려 1.4후퇴 때 월남함. 인민군으로의 입대거부, 전시의 국군생활
G 할아버지	1931	78 (2009)	1957 (26, 20)	고종퇴	1남 1녀	교통사고사	독거	지물포가게운영, 농업	식민지교육, 굶주림의 시대	전시 병참부 소속 군생활
H 할머니	1932 (1926)	76 (2008)	1948 (동거16, 22)	보통학교졸	1남(1951년출생)	전사	독자가족과 동거	공업, 행상	식민지교육, 굶주림의 시대	전물군인이 된 독자의 아버지 ¹¹⁾ , 피난생활의 어려움
I 할머니	1926 (1927)	82 (2008)	1943 (17, 16)	무학	2남 2녀	전쟁부상으로 인한 사망(1952)	장남가족과 동거	농업, 품팔이	언급 없음	참전한 남편이 부상당하여 제대함. 이후 2년 만에 사망함.

본 '연구주체들'은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을 집합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후기노인들이다. 이들 중 A할머니와 C, D할아버지는 친일적인 활동을, E, F, G 할아버지는 전시의 국군생활을 통해 6.25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노인들이다. 그리고 B, H, I할머니는 남편들이 일제강점기나 6.25전쟁 때 죽은, 남편들의 죽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경험을 한 노인들이다.

본 연구주체들은 D, G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노인들인데, A할머니와 C, F할아버지는 양로원 입소노인들이고, B할머니와 E할아버지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들이다. 그런데 B할머니는 보행 시 기어 다녀야 할 정도로 허리가 굽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이지만 도시락배달서비스만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E할아버지는 장남 가족과 함께 3세대가구를 형성하며 생활하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양로원 입소노인들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들은 군인연금을 수급하는 C할아버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노인들이다. 그리고 농촌노인들인 D, G할아버지와 H, I할머니는 일반 재가노인들인데, D할아버지는 부인과 함께 노인부부가구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고, G할아버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부인을 잃은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H, I할머니는 각각 독자와 장남의 가족과 함께 3세대가구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다.

2) 후기노인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개인적인 역사경험'

후기노인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주로 경험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즉 직접적인 역사경험은 두 역사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개별화된 현재성'이 있는 반면,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두 역사 모두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잠재된 현재성'이 있다.

이에 먼저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역사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에 대해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경험은 '친일경험'이, 그리고 6.25전쟁에 대한 경험은 '국군생활'이 키워드가 되는데, 친일경험은 '친일행위'에 대한 의식여부에 따라 '은폐'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미화'되는가 하면, '탈역사화·개인화'되기도 한다. 반면, 자리매김은 은폐되는 경우에만 '과거의 친일경험에 갇힌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화나 탈역사화·개인화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된 삶'으로 이루어지는, 양분되는 현재성이 있다. 한편, 국군생활을 통한 전쟁경험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대한 선경험(Vorerfahrung)의 여부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정체성문제'와 결부되어 표출되는가 하면, 노년기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과장·확대'가 되기도 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자리매김은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있다.

10) 학교명은 현 시스템이 아닌 본 생애사주체들이나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 시기에 불린 대로 칭할 것이다. 초등학교가 아닌 보통학교나 국민학교로 칭하는 것이 그 예이다.

11) H할머니는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모로서 독자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살아왔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사자가 독자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H할머니의 남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남편'으로 칭한다.

이처럼 직접적인 역사경험이 개별화된 현재성이 있는 것과는 달리, '남편의 역사적 죽음'으로 표출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탈역사화·개인화되는 공통점이 있고, 자리매김 또한 '과거의 역사경험과는 단절된 삶'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잠재된 현재성'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경험방식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후기노인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1) 직접적인 역사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이 나타난 생애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은 친일경험으로, 그리고 6.25전쟁에 대한 그것은 국군생활로 테마화되는데, 이러한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각각의 역사적 사건에 따라 상이하다. 그런데 이러한 친일경험이나 전시의 국군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경험은 체험된 생애사에서, 그리고 이러한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이야기된 생애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 친일경험이나 전시의 국군생활로서의 객관적인 역사경험은 체험된 생애사에, 그리고 이러한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이야기된 생애사에 근거한 분석을 할 것이다.

① 직접적인 일제강점기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

가. 직접적인 '친일경험'

본 생애사주체들의 친일경험은 "대일본부인회 지부장", "일본해군 통제부 후보 배달원"과 "선박설계·수리공장 노동자", 즉 "일본해군문관", "면사무소 소사" 등 대표적인 친일적 사회기관이나 식민자본에 의한 군수산업 혹은 관공서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 요서 살다가 직장 땀에 저, 북쪽으로 가서 대일본부인회 지부장으로 있었다이가. 내가 그때는 감투 쫄 썼다가. 힘이 쫄 있었어."(A할머니) "통제부, 이전에는 군인들(일본해군들) 식당에 주보를 했어. 주보라는 것이 파자다 뗏이다 이런 걸 파는 데. (...) 시내서는 공장에 가서 마, 그런거 하고. 그때 일본아들 한 30대, 40대 되는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 사람들하고 이 설계도면 그, 저, 뭐, 뭘 청사진 도면 있잖아. (...) 인력이 요 공사를 하는데, 얼마얼마 든다. 재료가 얼마얼마든다. 고런거를 우리가, 우리는 돈 계산해가지고 삼판 이래 해가지고 얼마얼마된다. 인건비, 공수, 재료비, 그런걸 인자 그거로 작성해내고 그래 하는거."(C할아버지, 1차 인터뷰) "열여덟 살 전후로 해서 (선박설계·수리공장에) 들어갔지. 그래 7년 근무하고 해방됐다(웃음)."(C할아버지, 2차 인터뷰) "보통학교 졸업하고는, 면사무소 가서 처모냥은 소사하면서 그렸어요, 내가."(D할아버지)

"대일본부인회"는 '전시총동원체제기(1937-1945)'에 여성의 힘을 총동원하기 위해 1942년 일본에 있는 대일본부인회에 의해 결성된 단체로서, 고위 관료부인들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친일적인 단체(임종국, 1996; 한국여성연구소여성사연구실, 1999)였다. 그리고 "통제부 후보"는 일본해군부대의 매점으로서 일본해군력의 유지·강화에 간접적인 기여를 하였고, "선박설계·수리공장"은 일본해군을 위한 정비지원을 주임무로 한 식민자본에 의한 군수산업이었는데, 해방 후에는 한국해군에 의해 창설(1948)된 조함창의 근간이 되었고, 이어 한국의 해군공창(1952)과 해군 군수사 정비창(1986)으로 발

전·승계되었다(연합뉴스, 2006). 그리고 “면사무소”는 경찰주재소처럼 일제강점기 수탈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친일적 관공서 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이들의 사회활동이나 생계활동은 친일적인 단체나 군수산업 그리고 관공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식민국가의 유지·강화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체험된 생애사에 나타난, 이러한 사회단체나 식민자본에 의한 군수산업 혹은 관공서에서의 활동을 통한 친일경험이 어떠한 현재성을 보이는지, 이야기된 생애사에 근거해 재구성하고자 한다.

나. 직접적인 ‘친일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

직접적인 친일경험의 현재성은 친일행위에 대한 의식여부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고, 자리매김도 이러한 상이한 의미부여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먼저 친일행위에 대한 의식여부에 따른 의미부여의 차이를 보면, 친일행위에 대해 의식한 것으로 나타난 생애사에서는 친일경험이 은폐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미화되는데, 이에 대한 자리매김은 은폐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친일경험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양분된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친일행위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생애사에서는 친일경험이 탈역사화·개인화됨에 따라, 미화되고 있는 경우에서와 동일하게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이하에서는 친일행위의 의식여부에 주목하여 이러한 친일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가) 친일행위에 대한 의식이 있는 생애사에 나타난 ‘개별화된 현재성’

친일행위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생애사에 나타난 친일경험의 현재성에 대해 분석하면, 이러한 친일행위에 대한 의식은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강제되어 형성되는데, 이에 따라 현재성도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은폐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미화됨에 따라, 과거의 친일경험에 갇힌 삶이나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상이한 현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 ‘은폐’로 인한 ‘과거의 친일경험에 갇힌 삶’

직접적인 친일경험을 은폐함으로써 과거의 친일경험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성은 남쪽 출신으로서 북쪽으로 이주하여 대일본부인회 지부장의 활동을 했던 1912년생 A할머니의 생애사에서 나타난다. A할머니는 해방 후 북한사회에서 “친일파”로 몰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이처럼 외부적으로 강제되는 친일파 논란 상황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과거활동이 친일논란의 대상이 됨을 의식하게 된다.

“그때는 일본사람이랑 손잡고 일만 하든 친일파라고 몰았다이가. 즈그도 다 일본사람이랑 일해놓고

그런다가. (...)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본인들이랑 같이 일했다고 친일파니 뭐니 떠들어싸가지고 내 그런 오해 받기 싫어서 옳로 다시 내리왔다이가. 즈그들도 다 그리 같이 일해 놓고 내가 쫘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꼬 내보고 다 덮어 씌어가 친일파니 뭐니 지껄여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고마 도망왔다.”(A 할머니)

그러나 A 할머니는 “친일파”로 몰리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회활동이 친일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14후퇴 때는 월남을 하게 된다. 이후 남한사회에서는 친일행위를 한 자신의 과거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친일파”가 아닌 일반인으로 살기 위한 외적 및 내적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중 일반인과의 동일시를 위해 행한 외적 노력은 “대일본부인회 지부장”으로서 부유한 생활을 했던 북에서의 생활과는 대비되는, “무식”하고 가난한 중·장년기의 촌부생활을 통해 성공에 이르렀었던 듯 보인다. 또한 이러한 “친일파”의 낙인으로부터 일견 자유로운 듯한, 일반인과의 같은 생활은 83세의 나이로 무료양로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무식한 늙은이”로 생활하는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 내리와서 N동에 포도밭 하나 얻어가지고 그 거 하면서 살았지.”(A 할머니, 1차 인터뷰) “나 이가 요서 제일 많애. 나보다 유식한 사람이 더 많애, 나는 무식해.”(A 할머니, 2차 인터뷰)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동일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자기부정(Selbstverleugnung)’과 이에 따른 ‘자기소외(Selbstverfremdung)’로 인해 내적인 동일시에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A 할머니가 사회성이 부족하여 독방을 쓰고 있고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주변 들판을 배회하기를 즐겨하는, ‘왕따’를 자초하는 ‘아웃사이더(Outsider)’라는 해당 양로원의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아울러 2차 인터뷰 말미에 이르러 익명성을 강조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듯 부른 다음과 같은 가사내용에 주목할 때에도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을 확보한다고 하겠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을. 온 동네를. (...)”(A 할머니)

즉 친일행위를 했던 시기의 부유한 생활방식과는 정반대의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친일적 자신을 은폐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다른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는 ‘자기모순(Selbstwiderspruch)’에 빠지는 아이러니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A 할머니는 평소에 수시로 벽 여기저기에 써놓은 수많은 글들뿐만이 아니라 인터뷰 종결 시 인터뷰실시자에게 한자로 써서 보여준 ‘人生無常¹²⁾’이라는 글자에서 보듯, 다른 일반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친일경험을 은폐하게 됨에 따라, 자기부정에 의한 자기모순에 빠진 채 아

12) 친일행위를 은폐하는 A 할머니는 친일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일반인들과 동일시하는 수단으로 ‘무식함’을 활용한다. 그러나 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녀의 교육수준은 현재에도 한자와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것에서 보듯, 교육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동시대 여성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웃사이더가 되어 여전히 과거의 친일경험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 ‘미화’로 인해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된 삶’

직접적인 친일경험의 미화로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성은 일본해군 소속 매점의 배달부 생활과 “일본해군문관”의 생활을 한 C할아버지의 생애사에서 나타난다. A할머니처럼 C할아버지에게서도 해방 후 “친일파” 논란에 휩싸인 것이 계기가 되어 친일행위에 대한 의식이 강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미화하는 방식으로 정반대로 이루어진다. 즉 보통학교 졸업 이후 “일본해군문관”으로서 생계활동을 한 C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A할머니처럼 친일논란에 휩싸이는 경험을 하지만, 해방된 이후에는 은폐로 일관하며 과거의 친일경험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되는 A할머니와는 달리, 해방된 한국사회에도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기노년기를 보내는 현재에도 일본해군문관으로서 활동했던 시절에 경험한 일본문화를 한국문화와 대비시켜 미화하고 있다. 이에 C할아버지의 직업사에 나타난 이러한 친일경험의 현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C할아버지는 15세 때부터 17세 때까지 2-3년 동안 일본해군의 매점인 “생과자집”에 입주하여 배달 일을 시작한 후, 일본인 매점주인의 추천으로 역시 일본인이 공장주로 있는 일본해군의 정비기관인 “선박설계·수리공장”에 취업하여 “일본해군문관”으로서 7-8년을 일하던 중 해방을 맞는다.

“일본집에, 과자집에 열다섯 살¹³⁾? 이 정도 때, 집에서 못살았어. (...) 열일곱 살 전후로 해서 (선박설계·수리공장에) 들어갔지. 그래 7년 근무하고 해방됐다(웃음). (...) 내가 댕긴 즈 공장에, 수릿공장이라 해가지고 인기가 좋았다. (...) 그때 취직은 어, 요 일본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음, 소개, 추천해줬다.”(C할아버지, 2차 인터뷰)

그런데 이러한 그의 직업사에서는 일본해군의 매점인 “생과자집”에서 시작된 배달원생활이 다시 일본해군의 “선박설계·수리공장”에서의 선박수리공인 “일본해군문관”의 생활로 이어지고, 해방 후 1년간의 휴식기를 거친 다음에는 곧 바로 한국해군 조함창의 선박정비공인 “한국해군문관”으로서의 직장생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공장이, 한국 사람들이 해군이, 군대가 있고, 군함이 있고 이라니까. 그계서 조함창을 했어, 배수리도 하고, 자그만 배도 맨들고, 해방, 해방되고 한 1년 가까이 집에 있었는데. 그라고 난 뒤에 이래 공장에 들어갔지, 응, 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운영해야 된다. 우리 해군이 있으니까, 해군 그 당시에 창설하든지 했다.”(C할아버지)

즉 “생과자집”에서 시작된 배달원생활은 일본해군력의 유지·강화에 간접적인 기여를 하였고, 일본해군을 위한 정비지원을 주임무로 한 선박수리공으로서의 “일본해군문관” 생활도 일본해군력의 증진에 기여를 하였는데, 해방 후에는 한국해군의 함정을 만들고 정비하는 조함창 정비원에서의 “한국해

13) C할아버지는 “열여섯 살”이라고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으로 표기하기 위해 연령을 1세씩 줄였는데, 이러한 연령표기는 본 생애사주체들 모두에게 적용시켰음을 밝힌다.

군문관” 생활로 이어짐에 따라, 한국해군 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했던 역사적 아이러니 현상이 그의 직업생애사를 특징짓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 후에는 C할아버지가 친일논란에 휘말리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적 상황도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모면해간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해방된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한국어보다 더 잘 구사할 수 있었던 일본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일한사전을 구입해 독학하는 적극적 노력을 통해 신속히 적응해 간 것이 그 예라 하겠다.

“그때 왜정시대니까, 그 시장가스 이 사전, 국어사전, 일본말로 주욱 하다 한국말로 이래 갑재기 바 풀라하니까 안돼서. (...) 그래 그런 거 사가지고 많이 그 공부를 했다. 집에서(웃음), 말 배안다꼬.”(C 할아버지)

이처럼 C할아버지의 직업사에서는 친일행위가 내재된 “일본해군문관” 생활이 해방 후에는 “한국해군문관” 생활로 이어짐에 따라,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된 삶의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의 직업사위주의 생애사에서는 일본문화를 한국문화와 대비시켜 미화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즉 “일본해군문관” 생활을 통해 경험한 일본문화가 “깨끗하고 청렴한” 문화로 미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문화는 “부정을 일삼는” 문화로 일본문화와 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정시대에는 어렵도 없다. 부정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일체 부정은 용서 안한다. 근데 우리가 그때 머리에 빼였기 때문에 우리도 공식생활할 적에 부정 생각 안했어. 그래했기 때문에 정년퇴직까지 깨끗하게 지내 나왔잖아. 중간에 뭐 한국사회 되니까 뭐, 그 뭐야 해가지고. (...) 우리보다 좀 어린, 저 일본 왜정시대 근무 안 해반 사람들은 모르그든? 한국사회 마 이래 잊어버리고 한 사람들 많이 나갔지 않나. 정년퇴직하지도 못하고 많이 나갔다.”(C할아버지)

나) 친일행위에 대한 의식이 부재한 생애사에 나타난 ‘개별화된 현재성’: ‘탈역사화·개인화’로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된 삶’

반면, 친일행위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 생애사에서는 직접적인 친일경험이 탈역사화·개인화됨에 따라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되는 삶의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재성은 “면사무소 소사”의 경험이 있는 1929년생 D할아버지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친일적인 관공서에서의 직업경험은 빈농가정의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것도 보통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어린 시절에 행해졌던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후의 생애사에서는 이러한 친일적인 직장경험이 전혀 테마화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러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은 탈역사화·개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아부지, 큰 아부지가 무식허니까, 국문도 모르고 현재 자식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생계유지할라고. (...) 나도 때 써서는 학교, 보통학교 졸업하고는, 큰 놈을, 가서 관평 O면장이 말허자든 돈 벌이로 간다고 히서, 거그서(면사무소에서) 한 일 년 있다가 하루에 120원 씩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

봤고.”(D할아버지)

그러나 이처럼 탈역사화·개인화된 일제강점기 관공서에서의 급사생활은 해방된 한국사회에서는 정년트랙의 면사무소직원의 생활로 이어져, 연금생활자로서의 노년기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에는 물론, 공직생활자로서 전 생애에 걸쳐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면을 좀 땡기다가 한 41년을 땡겼어요. (...) 가꼬 P(지역)면장 또 Q(지역)면장까지 해왔고, 또 난 중에 가서는 R(지역) 와서 제대(퇴임을 잘못 말함)를 해갔고. (...) 현재 연금 145만원을 타고 있어요, 내가.”(D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D할아버지의 생애사에서는 해방 후에도 친일논란에 휘말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어린 시절에 행했던 ‘면사무소 소사’로서의 급사생활이 그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도 매우 미미한 친일적 행위에 그친 것으로 ‘사소화’되었거나 아예 친일적 행위로도 의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그의 생애사에서는 친일적인 관공서에서의 직업경험이 철저히 배제되는데, 이는 면장으로서 퇴임하기까지의 공직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계기를 설명하는 차원에서만, 그것도 생계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는 탈역사화·개인화된 이야기만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을 뿐, 친일경험을 의식한 이야기는 전 인터뷰내용을 통틀어 부재하다는 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즉 그의 생애사에서는 직접적인 친일경험이 탈역사화·개인화됨에 따라, 과거의 친일경험이 오히려 자양분이 되는 삶의 현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화에서는 국군생활로 테마화되는 직접적인 전쟁경험의 현재성을, 객관적인 전쟁경험은 체험된 생애사에, 그리고 이러한 전쟁경험의 현재성은 이야기된 생애사에 근거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② 직접적인 6.25전쟁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

가. ‘국군생활’을 통한 직접적인 전쟁경험

본 생애사주체들의 체험된 생애사를 분석하면, 국군생활을 통한 직접적인 전쟁경험은 출신국과는 상관없이 행해졌음을 포착할 수 있다. 즉 남한 출신만이 아니라 북한 출신의 노인들, 예컨대 남한출신의 1931년생 농촌독거노인 G할아버지와 1930년생 도시재가노인 E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북한출신의 1924년생 양로원 입소노인 F할아버지도 국군생활을 통해 6.25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G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참여화된 좌·우익갈등으로 “마을의 좌익 청년들이 죽어나간” 경험을 한 직후 병참부 일원으로서 전시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고, E할아버지는 의기사제도를 활용하여 전시 군복부생활을 조기 마감한 경험이 있으며, F할아버지는 인민군으로의 입대를 기피하고 월남한 직후 “김해공명학교”에 입교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조교로서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다.

“군대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병참부. 병참부로 카모 보급 1종 2종 3종 4종, 1종이라카모 먹는 거, 2종은 피복, 3종은 연료, 4종은 사람이 죽으면 의장치르는 거 그거다 병참부라.”(G할아버지)

“논산 제 1훈련소 한 달 매치 하는 거, 하는 데로 들어갔는기라. 그 마치고, 광주 기갑학교로 뽑혀갔지. 14주 교육받고 전방 올라갔다야이가. 군대 막 올라가니깐 휴전되어 버렸으. 병원에서 날짜만 가면, 전방에 안 간다. 그런 각오하고 그랬는데, 있었지. 올라가고 휴전되어 버렸으. 휴전되고 거기서 근무 좀 하다가 이병 제대. 독신(독자를 잘못 말함)이니깐 이병 제대했다.”(E할아버지) “38선을 넘어서 피난생활 20일 만에. 그리가고 김해공명학교라고 있었어. (...) 사병교육을 맡으면 신병들 교육을 시키는 선생이 되버리는거라.”(F할아버지)“

그런데 이들의 전시 국군생활의 경험을 자세히 분석하면, G할아버지는 고종퇴의 고학력자로서 병참부 일원이 되어 ‘총을 쏘보는 일 없는 후방’근무를 했던 것으로, E할아버지는 전방에 투입된 경험이 있으나 휴전이 됨에 따라 직접적인 전투경험 없이 의가사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제대를 했던 것으로, 그리고 F할아버지는 가족부양이 막막한 월남 직후의 상황 속에서도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을 두고 입대할 만큼 ‘국군’이 되는 데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체험된 생애사에 나타난 이러한 국군생활을 통한 전쟁경험이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현재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 ‘국군생활’을 통한 직접적인 전쟁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

국군생활을 통한 6.25전쟁경험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대한 선경험의 여부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정체성문제와 결부되어 표출되는가 하면, 노년기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과장·확대가 되기도 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자리매김은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군생활을 통한 6.25전쟁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가)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선경험이 있는 생애사에 나타난 ‘개별화된 현재성’: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문제’로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

국군생활을 통한 6.25전쟁경험이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대한 선경험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문제와 결부되어 표출됨으로써,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현재성은 생애사주체들의 출신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이북출신인 F할아버지는 1.4후퇴 때 월남하기 전 북한사회에서는 “반동분자”로 몰린 경험을 한 반면, 월남한 직후 남한사회에서는 국군이 된 경험이 있고, 후기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는 입소노인들로부터 “빨갱이”로 불리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혼란을 경험한다. 그리고 G할아버지도 해방 이후 참여화된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경험하는데, 부유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태생적으로는 우익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고 스스로도 그러한 사회적 분류법에 암묵적인 동조를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좌익에도 일정 부분 동조를 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혼란을 경험한다. 그러나 국군생활을 하는 전시에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문제가 탈이데올로기화·개인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이에 먼저 F할아버지의 생애사에 나타난, 전쟁을 전후로 하여 경험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혼란 문

제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일제강점기 때 경찰생활을 한 6촌 형의 친일행위로 인해 해방 이후부터 전쟁이 한창이던 1.4후퇴 때까지 북한사회에서 “반동분자”로 몰리는 정치적 억압을 받은 것이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혼란을 경험하도록 한 시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반동분자로 몰렸으니까. (...) 우리 육촌 형님은 경찰을 했던 말이야. 일제시대 때.”(F할아버지)

그런데 이에 더해 인민군으로의 입대를 기피함에 따라 더욱 불리한 이데올로기적 상황에 빠지게 되자 월남을 하게 되는데, 월남 직후에는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입대할 만큼 국군이 되는 데에 인민군으로의 입대를 기피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적극성을 보인다. 이는 이북출신인 F할아버지가 인민군이 아닌 국군에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찾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새벽근무를 서던 중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 병사를 “썰리마 처서(때려잡아)” 21일의 휴가를 받을 정도로 ‘능력’있고 ‘용감한’ 국군이었음을 강조하는 이야기에 잘 나타나있다.

“노동당원이 돼서 군대를 가야되는데. (...) 엄마가 그때 근약풀 뜯어가지고 군대에서 죽을래 집에서 죽을래, 죽어도 집에서 죽어라, 같이 죽자. 근약풀 가지고 다리에 붙여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리가 이래 이래 되는기라. 그래 여기 흉터가 있다. (...) 진단서나 떼달라고, 노동당에다가 접수시켜 놓고 며칠 아꼈단 말이야. 또 낮을라하면 또 붙이고, 붙이고 (...) 두세 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철망에 깡통 같은 걸 달아놓고 닿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야. (...) 내가 보니까 도망치려다가 나무태기에 숨어있는거라, 혼련병이. (...) 그래 이걸 잡아가지고 썰리마 치고(통쾌한 웃음). (...) 작전과 소장님이 별하나, 내한테 “옥봤다.” 그러니까. “뿔니까?” 이렇게(흐뭇한 웃음). “도망병 잡는다고 옥봤다.” 그러는기라. (...) 그래서 21일 휴가를 주더라 즉석에서.”(F할아버지)

그러나 양로원에서 후기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는 다른 입소노인들로부터 “반동분자”와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각을 이루고, 국군과도 대치되는 “빨갱이”로 불리는 아이러니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로는 움직이니까 아래도 (딸 집에) 갔다왔지만은 “빨갱이야 잘 갔다왔나?” 카드만(아무런 불쾌감을 보이지 않음). 자고 오고, 자고 오고 하거든.”(F할아버지)

그런데 이때 입소노인들이 그를 “빨갱이”로 부르는 이유나 그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빨갱이”로 불릴 때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면,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내재되어 있는 집합적 이데올로기가 입소노인들이나 F할아버지 당사자에게도 투사되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입소노인들은 그의 개인적인 이데올로기적 성향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단지 월남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빨갱이”로 낙인하고 있으며, 그 또한 이러한 집합적 편견을 여과 없이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반동분자”로, 그리고 남한에서는 “빨갱이”로 타인들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뿐만 아니라, F할아버지 자신에 의해서도 부여된 국군으로서의 정체성도 매우 상호 대립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스스로에 의해 부여된 “이복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마저 덧붙여지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난 여기 사람이 아니라 이복사람이구.”

따라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혼란을 경험한 그의 생애사에서는 국군생활을 통한 6.25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이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으로 자리매김되는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어 G할아버지의 생애사에 나타난, 전쟁을 전후로 하여 경험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문제를 분석하면, 그는 해방 이후 첨예화된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속에서 좌·우익에 대한 태생적 및 심리적 귀속감 간의 차이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혼란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소학교, 국민학교 아인나. 그때 땡길 때는 나는 이 동네에서 우리 집에 제일 잘 살았어. (...) 해방 될 때 우리가 6학년이라 졸업맞고, 중학교 들어갈 때 해방이 났으. 대동아 전쟁도 맛봤고, 해방 뒤에 좌우 해가꼬 민란이 일어나꼬, 나는 좌고 나는 우다. 10월 폭동이 일났다. (...) 우익이라하든 인자 돈 있는 사람을 우익이라 켜단말이야. (...) 10월 폭동 때 폭동이 일어나지고, 그때는 없는 사람이 안 많나? 소작을 해가지고 근그이 묵고 살았다 아이가. 그때 농민조합이 좌익에서 벌인거라. 무상보수, 무상분배, 무상으로 마 뺏들어가지고 무상으로 준다. 공계 없는 사람은 토지하고 뺏들어 준다니까 얼마나 좋노 말이다. 그러니까 전부 좌익에 다 가담했던 말이다. (...) 그레가지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좌익들이 그걸로 인헤가지고 많이 희생을 당했다. 무법천지 아니가, 붙들어가지고 고초를 많이 당했지. 당해가지고, 그레 주옥 누적이 되가지고 6.25사변 때, 보도연맹이라는게 있단 말이다. (...) 보도연맹 가입하면 너저 용서를 해줄꾸마. 그런 정도로서 해가지고 보도연맹 가입을 해라, 이레 된기야. (...) 근데 그레쌌다가 6.25사변 안났나. 그자?”(G할아버지)

즉 G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6.25전쟁 때까지 경험한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부유한 가정적 환경으로 인해 태생적으로는 우익에 귀속된 것으로 분류되었고 스스로도 그러한 사회적 분류법에 암묵적으로는 동조를 하였지만, 심정적으로는 좌익에서도 일정 부분 귀속감을 찾는, 태생적 및 심정적 귀속감 간에 나타나는 차이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혼란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참부 일원으로서 국군생활을 한 전시에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문제가 ‘탈이데올로기화·개인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탈이데올로기화·개인화로의 정체성변화는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달리하는 인민군과 대적하여 “총을 쏘는” 전방의 국군들과는 달리, 행정·보급을 담당하는 후방의 병참부 일원으로서, 해방 이후 직면한 첫 번째 이데올로기적 소용돌이에 이어 두 번째의 이데올로기적 소용돌이도 피했던 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굶주리며 군생활을 하던 전시에도 “많이 먹을 수 있었던” 점을 “참 좋게 군대생활”을 했던 것으로, 그리고 전쟁에 처한 군생활보다는 일상으로서의 군생활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인제 나는 그 계통(병참부)에서 일했은께 총을 쏘고 탄 사람처럼 그러지는 않았고, 후방에

있다가. (...) 병참부 1종 하는 말이 행정보급하는. 많이 묵기도 잘묵고, 군대생활도 참 좋게 했지. 그래서 인자, 군대에서 인자 내가 돈을 좀 벌었어(겸연쩍한 웃음). 부정을 해가지고 쌀같은거. 이런거 하게 되며, 각 부대 예하 부대에서 수송을 우리가 해주는데. (...) 각부대마다 인자 도둑질을 해물라고 시키는 기라. (...) 그래가 그걸 돈으로 판다이가, 전부 도둑놈이라. (...) 그래가 인자 내가 늦게 나오가지고 내가 대전가가지고 지물포를 했어.”(G할아버지)

특히 제대 후 운영하게 될 지물포 사업을 위한 자금을 병참부 일원으로서 군복무 하던 전시에 부정 한 방법으로 마련했을 정도로 ‘부패한 국군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야기하는 지점에서 이러한 탈이데올로기화·개인화로의 정체성변화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G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첨예화된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혼란을 경험하지만, 국군생활을 하는 전시에 그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탈이데올로기화·개인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국군생활을 통한 6.25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은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으로 자리매김되는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나)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선경험이 부재한 생애사에 나타난 ‘개별화된 현재성’: ‘과장·확대’로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대한 선경험 없이 6.25전쟁을 국군생활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한 생애사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이 과장·확대되면서,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현재성이 있다. 예컨대 E할아버지의 체험된 생애사에서는 전쟁이 난 해인 1950년에 입대하여 제주도에서 군생활을 하였는데, 채 2년을 못 채운 시점에서 병이 나 “부산의 제 1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치료 이후에는 다시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14주간의 교육을 받고 광주의 “기갑학교”에 배치되었지만, 2대 독자로서 의가사제대 제도를 활용하여 군생활을 앞당겨 종결함으로써, 전투경험 없는 “국군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마치 전장에 투입되어 전투를 했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기갑학교” 일원으로서 탱크를 몰고 복진하려던 찰나에 휴전이 되는 바람에 전투를 해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제대해야 했던 것처럼, 전방에 투입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노출하는 등 상호 모순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또한 평소 주간보호센터 이용노인들이나 종사자들에게 했던 그의 이야기에서도 마치 전장에 투입되어 인민군을 “용감하게 무찔렀던” 전투경험이 있는 것처럼 전쟁경험을 과장·확대하는 ‘소영웅주의적 태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각종 뺏지가 부착된 제모와 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인민군을 “용감하게 무찔렀던” 자칭 “참전용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영웅주의적 태도와 “참전용사”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의 이면에는 그가 처한 후기노년기의 빈곤상황이 자리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즉 빈곤한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공적 부조를 통해서도 후기노년기의 빈곤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게 되자, 참전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에 전쟁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쟁경험을 과장·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돈 8만원, 파자 값도 안 되는 그거로 연금이라고 주고, (...) 부잣집 아들 오데 소풍갈 돈인데, (...) 우리가 인자 6.25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승인된다이. 국가유공자니까 최하로 100만원 연금을 줘야 되는데, 최하로 (...) 8만원 그 가이고, 그 돈으로 약도 사먹고, 차비도 하고 그렇지 뭐. 술도 한 잔 못 먹어.”(E할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빈곤 속에서 E할아버지는 참전유공자 지위를 일상적으로 오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현상도 ‘일상화(Veralltäglichung)’되고 있다. 즉 참전유공자 지위의 오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의 빈곤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전명예수당도 미흡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지카드를 통한 간접 지원마저도 저조한 수준에 그치게 된 열악한 상황에서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쟁경험을 과장·확대하며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현상도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참전유공자 복지카드를 오용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무슨 독립유공자나 무공수훈자는, 참전유공자는, 증은 똑같애. 색이 똑같애. 글자 한자 한자 똑같애. 우리는 색이 달라. 아는 사람이 딱 보면 확실히 아는데, 그 운전수들이 봐주는기라. ”수고하십니까.“ 하면, 비주면, 아무 말 안 하면 가서 앉아뿌는기라.”(E할아버지)

이처럼 그의 생애사에서는 국군생활을 통한 직접적인 전쟁경험이 소영웅주의적 태도로 인해, 그리고 “참전용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과장·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으로 자리매기되는 현재성이 있다.

반면 G할아버지는 앞서 분석했듯이,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병참부 일원으로 ‘끓주리지 않고 편안하게’ 국군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심지어는 “도둑질”한 국군생활에 대해서조차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과장·확대하는 E할아버지와는 대조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처럼 G할아버지가 E할아버지와 동일한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전시의 국군생활을 과장·확대하지 않는 것은, E할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이 처한 후기노년기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주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역사경험은 각각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에 따라 개별화된 현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해 개인적이지만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두 역사 중 어느 역사와 관련된 경험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잠재된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재구성을 하고자 한다.

(2)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개인적이지만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어느 역사와 관련된 경험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경험이 키워드가 되는 생애사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러한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탈역사화·개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적 과거와는 단절된 삶으로 자리매김되는 현재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애사에서는 ‘가장의 부재’ 속에서 가장역할을 대신 감당해야 했던 ‘전형적인 여성 삶’이 중심내용을 이룬다. 한편, 이러한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체험된 생애사에서는 키워드가 되지만,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주변화되는 불일치를 이루는데, 이는 간접적인 역사경험이 잠재된 현재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남편의 죽음을 통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체험된 생애사에, 그리고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은 이야기된 생애사에 근거해 분석할 것이다.

①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간접적인 역사경험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B, H, I 할머니의 체험된 생애사에서 나타나는데, B할머니의 경우에는 결혼생활 2년 만인 1941년 일제강점기 말에 남편이 강제징집 당한 후 행방불명되었고, H할머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결혼생활 2년 만에 전시에 입대하여 전사당했으며, I할머니의 경우에는 남편이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7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전시에 입대하였으나 전쟁부상 후유증으로 제대한지 2년 만에 죽는 경험이 있다. 즉 이들 후기 여성노인들은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해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래, 왜놈들이 군인을 요새, 군인 오라고 그거 소통 오면 가야 안 되나. 내나 뭐 그 그런 식으로 갔지. 그때는 그, 그카면 민간인이 일본인이거든. 그래가꼬 끌려갔다 군인으로, 군인으로...”(B할머니)
 “6.25전쟁 터졌을 때, 저게 머꼬 참전해가꼬 가서 그리로 끝났지 머.”(H할머니) “탄환껍데기가 날라 감시로 껍데기에 맞은기 요래 싹 다 벗겨져왔대. 그래 병원 석 달 있다가, 그래 거시, 지대 바로 했어. 군대 전방 갔다가 총도 한 번 못 울러매고, 막 다치가꼬 오뿐는기라. 그래가 만날 병원에서 있다가, 있다가 마 스물다섯에 일찍 돌아가셨거든.”(I할머니)

그런데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남편의 역사적 죽음에 내재된 ‘역사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운명체’로서의 남편들을 둔 자신들의 여성 삶에 내재된 역사성도 탈역사화·개인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생애사에서는 역사경험이 역사적 과거와는 단절된 삶으로 자리매김되는 잠재된 현재성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②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

가.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탈역사화·개인화’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탈역사화·개인화는 한편으로는 역사적 운명체를 개인적 운명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의 부재 속에서 가장역할을 대신 감당해야 했던 전형적인 여성 삶으로 표출되는 특징이 있다.

가) '역사적 운명체'의 '개인적 운명체'로서의 인식

체험된 생애사에서는 역사적 운명체로서의 남편의 역사적 죽음이 키워드가 되나,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운명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불일치가 나타난다. 체험된 생애사에서와는 달리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남편의 역사적 죽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부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남편의 역사적 죽음에 대한 개인적 불행으로서의 인식은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이 탈역사화·개인화되고, 이에 따라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이 이들의 생애사에서는 주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탈역사화·개인화된 생애사에서는 가장의 부재 속에 가장역할을 대신 감당해야 했던 전형적인 여성 삶이 이야기의 키워드가 됨으로써, 체험된 생애사의 키워드와는 불일치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나) '가장의 부재' 속에 가장역할을 대신 감당한 '전형적인 여성 삶'

(가) '남편의 역사적 죽음'에 대한 '가장의 부재'로서의 인식

B, H, I 할머니의 결혼생활은 이른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해 강제적으로 종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편의 죽음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역사성은 상술한 바와 같이 탈역사화·개인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탈역사화·개인화는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이처럼 개인적 운명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데에서만 아니라 가장의 부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데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남편의 부재로서보다는 가장의 부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며느리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한 당시의 전형적인 여성 삶 및 짧은 결혼생활로 끝난 조혼과 관련시켜 해석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자와 관련시킨 해석은 다음 장으로 미루고, 먼저 후자와 관련시킨 해석을 함으로써 이해하고자 한다. 즉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남편의 부재로서보다는 가장의 부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조혼의 풍습이 관례였던 시대(박경숙, 2004; 이효선, 2006)에 자신이 아닌 부모의 의지에 따라 결혼을 한(양영자, 2007, 2008, 2009) 당시의 어린 부부들 대부분이 결혼 이후에서야 비로소 부부의식을 갖고 친밀감을 쌓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 반면, 이들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칠 시간적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남편들을 역사적 희생양으로 잃는 불행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나) 가장역할을 대신 감당한 '전형적인 여성 삶'

이처럼 B, H, I 할머니의 삶에서는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이 가장의 부재로 인식됨으로써 탈역사화·개인화되는데, 이는 며느리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한 당시의 전형적인 여성 삶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형적인 여성 삶은 이들의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당시의 가부장적인 유교사회의 여성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한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는 삶, 어머니로서의 희생을 감수하는 삶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먼저 순종하는 며느리로서의 전형적인 여성 삶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분석하면, "소가 코뚜레에 매이듯 좋은 싫든 시집에 매여 사는" 삶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동시대 여성들의 며느리로서의 전형적인 여성 삶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 동시대 여성노인들의 생애사에서도 며느리나 어머니로서의 삶이 키워드가 되고 부인으로서의 삶은 주변화

되고 있는데(박경숙, 2004; 이효선, 2006; 양영자, 2008, 2009), 이들의 삶도 부인으로서의 삶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에서만 일반 여성노인들의 삶과 차이를 보일 뿐 거의 동일한 삶이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는 기야 그대로, 그대로 사는기라. 고마 우짜든지 죽을 때까지 이집에 매이있으께, 이집에 살아야된다카는 그 목적으로, 소, 마구 코때기 매이가 있듯이 고마 그리 살았다.”(B할머니) “내 (시집)가서 아들, 한 해 지나면 아 놓고, 한 해 지나면 아 놓고 마, 열 서이, 열 둘이를 뇌뿌는기라. (...) 우리 시오마님은 아들 열한명이나, 열둘 놓고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서 논께네. 만이라꼬 만이역할 한다고 죽을 고생을 했어.”(I할머니)

따라서 B, I할머니의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며느리로서 시집에 매여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삶,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마저 일찍 죽는 바람에 11명의 시동생들을 돌보는 “만이역할”을 해야 했던 삶이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며느리의 역할에 전념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치중했던 H할머니의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전시에 태어난 독자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생계활동을 하며 갖가지 “고생”을 해야 했던 미혼모로서의 신산한 삶이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오만 거 다 했지, 그때 돈 벌일 게 있었나. 머 벌 짓을 다 해서 살았지. (...) 스웨티도 짓고 마, 오만 거 다 해가지고, 이리 저리 고생해가 살았지, 마.”(H할머니)

이는 이들의 남편들이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거나 죽는 ‘역사적 희생자’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불행을 개인적 운명체로서의 불행으로 탈역사화·개인화하며, 당시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며느리나 어머니로서의 전형적인 여성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남편의 부재 속에서 홀로 가족부양의 책임을 져야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남편의 부재는 부부공동체 속의 배우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진 가장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가장의 부재 속에 가장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내기 위해, 며느리나 어머니로서 “발악을 치는 삶”, “죽을 고생”만 한 극대화된 빈곤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극대화된 빈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집당한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고, 전몰군경이나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또한 미흡한 시기¹⁴⁾에 이러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했던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 하겠다.

나.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 ‘역사적 과거와 단절된 삶’

이처럼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탈역사화·개인화는 며느리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이테올로기를 내재화

14)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1984년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지원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보훈처는 기존의 원호처가 1984년에 개칭된 기관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설치된 원호처는 1961년에 설치된 군사원호청이 1962년 승격·개편된 것이었다(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따라서 이들이 가장역할을 할 때 주어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자체는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등 매우 잔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 당시의 전형적인 여성 삶을 살아간 것으로 표출되고 있고, 이는 가정의 부재 속에서 가장역할을 대신 감당하며 극대화된 빈곤을 경험해야 했던 삶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들의 간접적인 역사경험이 역사적 과거와는 단절된 삶으로 자리매김되는 잠재된 현재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에 역사적 과거와는 단절된 삶으로 자리매김되는 이러한 잠재된 현재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면, 극대화된 빈곤 속의 탈역사화·개인화된 삶은 계속해서 노년기와 후기노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녀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변화되는 특징이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징집된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홀로 살아온 B할머니의 경우, 시부모를 부양하며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장년기를 보냈는데,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며 탈역사화·개인화된 빈곤한 후기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전쟁부상 후유증으로 죽은¹⁵⁾ 이후, 맘머느리로서의 “만이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전력을 다 했지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I할머니도 마찬가지로 탈역사화·개인화된 빈곤한 후기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즉 국민학교만을 졸업한 빈곤한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I할머니는 장남가정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정도의 미흡한 부양만을 받으며, 여전히 탈역사화·개인화된 빈곤한 생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잘 해주지는 안 해도, 그냥, 저, 저 저거가 쯤, 쯤 마. 아들 공부 시킬라카제, 있는 거 뽀다 뽀다. (...) 또 내 그랬다. 후에 너거(맘머느리) 아들은 뭐 어찌 될란고 아나. “같이 살지 말지 뭐.” 쉬운 말로 그랬다. (...) ”결혼하면 떨어지살아, 한 번씩 오면 반값고“ 그란다카. 저거들이나 부모들 모시고 산다고. ”너거 말이라도 그랬지.“ 그러나 그카고 그렇다.”(I할머니)

그러나 남편이 전사한 이후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전념¹⁶⁾한 H할머니는 독자를 경제적 부담이 없는 교육대학에 진학시켰는데,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된 독자로부터 부양을 받게 된 장년기에 이르러서는 빈곤한 생활로부터 탈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때만 해도 교대 같은 데, 돈 없는 사람 참, 갔거던.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만큼은 교대 같은 데는 회비 같은 거 안 내고, 아마 S(아들)가 공부했을까다. 그래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직장가지고, 목고 살았지.”(H할머니)

15) 남편의 죽음과 관련한 I할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I할머니는 전몰군경유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존 당시 남편이 국가의 지원을 얻기 위한 한 차례의 시도 끝에 “지원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썼고, 이후에는 I할머니조차 더 이상의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전쟁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쟁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전쟁부상 자체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I할머니가 남편이 전쟁부상 후유증 치료에 “재산을 다 없애고” 죽었던 것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제대 이후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다 없앴던” 것으로도 이야기한 점에 주목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16) 미혼모인 H할머니의 생애사에서는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지 독자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데에 전념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녀의 생애사에서는 탈역사화·개인화된 삶이 점차 역사화되는 듯한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H할머니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미혼모로서의 지위가 갖는 한계로 거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당한 경험 자체가 H할머니의 탈역사화·개인화된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역사화 시키고, 역사적 과거와 단절된 삶도 미약하게나마 점차 고리를 끊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는 B H, I할머니의 생애사에서 나타난 탈역사화·개인화가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역사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바, 간접적인 역사경험이 탈역사화·개인화됨에 따라 역사적 과거와 단절된 삶으로 자리매김되는 잠재된 현재성의 기저에는 국가지원시스템의 열악성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상으로, 후기노인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주로 경험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친일경험으로서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과 국군생활로서의 6.25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은 개별화된 현재성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편의 역사적 죽음을 통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잠재된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러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노인복지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경험방식의 차이에 따른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개별상담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즉 개인적인 역사경험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역사경험이 체험된 생애사에서는 물론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도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역사경험이 개별화된 현재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이러한 역사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을 이해한 노인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친일경험의 현재성은 예컨대 양로원 입소노인인 A할머니의 경우에는 친일경험을 은폐하며 과거의 친일경험에 갇힌 채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양로원종사자들은 이러한 배제적인 입소생활의 원인을 단지 A할머니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에서 찾으므로써, 탈역사화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경험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A할머니의 아웃사이더로서의 입소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항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개별화된 현재성을 이해한 노인상담을 통해 '인사이더(Insider)'로서의 입소생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능력을 강화시켜야 하겠다.¹⁷⁾ 또한 전시 국군생활을 통한 전쟁경험의 현재성은 예컨대 E할

17) A할머니의 사례는 동시대인들의 역사경험, 특히 독립유공자들이나 일본군위안부들, 예컨대 안해룡(2009) 감독의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다큐멘터리 속 송신도 할머니와 같은 동시대인들의 개인적인 역사경험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전형적인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을 생애사주체로 한 후속연구도 후기노인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개별

아버지의 경우, 전시의 국군생활을 과장·확대함에 따라 과거의 전쟁경험으로 회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의 빈곤한 후기노년기를, 참전유공자 지위를 국가유공자 지위로 격상시킴에 따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E할아버지는 참전유공자 복지카드를 일상적으로 오용하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참전유공자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상담도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이지만 간접적으로 역사를 경험한 경우에는 모두,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이 체험된 생애사에서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주변화되는 불일치를 보였는데, 이는 간접적인 역사경험이 잠재된 현재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이러한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을 이해한 노인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B, H, I할머니의 경우, 역사적 운명체로서의 남편의 죽음에 내재된 역사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희생자의 부인으로서의 자신의 생애사에 내재된 역사성도 탈역사화·개인화하고 있는 바, 남편과 자신의 생애사에 내재된 역사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들의 주관적인 의미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교육상담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아울러 이들 대부분이 열악한 후기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바, 사례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열악한 후기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E할아버지의 경우, 생계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자원과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관리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열악한 후기노년기 경제상황을 참전유공자로서의 지위를 오·남용함으로써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볼 때,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다 하겠다. 그리고 B, I할머니의 경우, 국가의 지원에서 완전 배제되어 빈곤한 후기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 이들과 같은 역사적 희생자 유족의 경우, 긴급지원의 형태로 원조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독자의 아버지가 전사한 미혼모 신부인 H할머니의 경우,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 국가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실질적인 복지욕구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국가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당한 이러한 경험 자체가 H할머니의 탈역사화·개인화된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역사화 시키고, 역사적 과거와 단절된 삶으로부터도 미약하게나마 점차 고리를 끊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탈역사화·개인화된 역사경험도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역사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이 역사적 과거와 단절된 삶으로부터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은 탈역사화·개인화된 역사경험을 역사화 하는 데에, 그리고 역사적 과거와 단절된 삶으로서의 잠재된 현재성을 가시화하는 데에도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이러한 후기노인들의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과 잠재된 현재성을 이해하고 노인복지실천에 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A할머니

화된 현재성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요구된다 하겠다.

의 아웃사이더로서의 입소생활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양로원종사자들의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에 대한 몰이해로 항구화되고 있는 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역사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을 이해하고 노인복지실천에 임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직업사 위주로 이야기하는 A할머니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듯, 그녀의 삶은 가족사 위주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여성 삶을 살아온 동시대 여성노인들의 삶(이효선, 2006; 양영자, 2008)과는 대비를 이루는 바, 각 코호트구성원들의 '개별성' 못지않게 코호트의 '전형성' 또한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컨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인 B할머니의 열악한 후기노년기 삶도 재가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개인적이지만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에 대한 몰이해로 담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후기노인들의 삶에 나타난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을 이해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임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마찬가지로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귀옥. 2003. "한국전쟁의 사회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 : 분단과 전쟁을 넘어 통일과 평화의 사회를 향하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1): 131-154.
- 김미혜·강인. 2002. "여성노인의 회상에 의한 한국근대사에서의 시부모부양 경험에 관한 연구. -지시적 자서전적 방법-". 『한국노년학』 22(3): 1-19.
- 박경숙.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4): 101-132.
- 박기남.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독거여성 노인의 삶". 『페미니즘 연구』 4: 149-194.
- 박성희. 2006. "노년기부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년기부부의 학습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노인복지 연구』 31: 161-179.
- 안해룡. 2009.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다큐멘터리.
- 양영자. 2007. "손자녀 교육을 위해 이농한 후기 여성노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노년학』 27(1): 235-254.
- 양영자. 2008.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127-157.
- 양영자. 2009. "노인부양의 변화과정에 대한 생애사적 재구성 -농촌노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1-20.
- 염미경. 2001. "전쟁 연구와 구술사 :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 전망』 51(겨울호): 210-237.
- 윤택림. 1997. "구술사와 지방민의 역사적 경험 재현 : 충남 예산 시양리의 박형호씨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0-2: 187-213.
- 윤택림. 1999. "6.25와 유씨 가족". 제 31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윤택림. 2001. "한국 근현대사 속의 농촌 여성의 삶과 역사 이해 - 충남 서산 대동리의 여성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9: 207-234.
- 이용기. 2001.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 : 경기도의 한 '모스크바'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 6호: 11-55.

- 이효선. 2006. “질적 연구에 의한 한국 노인들의 삶의 이해”. 『노인복지연구』 31(봄호): 73-99.
- 임종국. 1996. 『실록 친일파』. 서울: 돌베개.
- 정근식. 2002. “한국전쟁경험과 공동체적 기억 - 영암 구립권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165-214.
- 정진상. 1995. “해방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 : 경남 진양군 두 마을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13(1): 331-351.
- 조흥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 공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J. W. Creswell.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Among Five Traditions. 서울: 학지사.
- 한국여성연구소여성사연구실. 1999.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청년사.
-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 한완상 · 박명규. 1992. “한국사회연구와 한국전쟁연구(권두논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 Atchley, R. C. and A. S. Barusch, 2004.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10th. Eds.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 Mayring, Ph. 2002. Einführung in die qualitative Sozialforschung. Weinheim: Basel: Beltz Verlag.
- Rosenthal, G. 1987. “Wenn alles in Scherben fällt...” Von Leben und Sinnwelt der Kriegsgeneration. Opladen: Leske + Budrich
- Rosenthal, G. 1990. “Als der Krieg kam, hatte ich mit Hitler nichts mehr zu tun”. Zur Gegenwärtigkeit des “Drittenreichs” in erzählten Lebensgeschichten, Opladen: Leske & Budrich.
- Rosenthal, G. 1995.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Gestalt und Struktur biographischer Selbstbeschreibungen. Frankfurt am Main: New York: Campus Verlag.
- Rosenthal, G., and W. Fischer-Rosentahl. 2005. “Analyse narrativ-biographischer Interviews.” pp. 456-468, in Qualitative Forschung. Ein Handbuch, edited by U. Flick, E. von Kardorff, and I. Steinke. Reinbek bei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 Rosenthal, G. 2008.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ührung.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 Schütze, F. 1983. “Biographieforschung und narratives Interview.” Neue Praxis, (13): 283-293.
- von Felden, H. 2003. “Biographische und ethnomethodologische Forschung als Analyseinstrument für die Konstruktion von Geschlecht.” Zeitschrift für qualitative Bildungs-, Beratungs-, und Sozialforschung, 4(2): 261-280.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me_07/014.asp
- 연합뉴스. 2006. “해군 첨단전력 메카 정비창 60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231101>

A Biographical Study on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Elderly in Later Years

-Their 'Individual Historical Experienc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Korean War-

Yang, Yeung-Ja
(Kyungnam University)

This research purports to reconstruct how the respective historical experiences on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Korean War have influenced the lives of the Korean elderly in later years from the biographical context. Nine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Schütze's 'autobiographical-narrative interview.' Interview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following Rosenthal's 'analysis of narrative-biographical interview.' How individual historical experiences have impacted the elderly's lives mostly indicated a difference in the way they experienced such historical events. While their pro-Japanese activities and direct, historical experienc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ir direct, historical experiences as veterans of the Korean War have influenced their life as individualized, their indirect, historical experiences on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Korean War have manifested themselves as a potential life severed from the historical past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how the elderly's individual, historical experiences have exerted an influence on their life, finally, some suggestions were addressed as regards welfare practices for the elderly.

Key words: Elderly in late years, historical experiences, life history, biographical research

[논문 접수일 : 09. 06. 21 심사일: 09. 08. 04 게재 확정일 : 09. 08. 13]